

선현(先賢)의 아름다운 발자취… 다산 정약용 생가를 찾아서

강 욱
자유기고가

가을은 사색과 여행의 계절이라고 말하지 않던가.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는 보도위를 거닐면서 기나긴 상념에 젖어들게 된다. 이럴 때면 시외버스나 완행열차를 타고 어디론가 무작정 떠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다. 아쉬운 듯 질어만 가는 만추(晩秋)의 주말… 가까운 교외로 길을 나서보자. 나 홀로 사색(思索)의 가을 여행을 하면서 한해를 조용히 마무리할 때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있는 다산 정약용(丁若鏞) 선생의 생가(生家) 마을을 찾았다. 이곳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늦가을의 포근하고 여유 있는 정취를 느끼기에 알맞은 곳이다. 한적한 시골의 옛 고향마을에 다시 온 것 같은 친근한 정감을 불러 일으켜 준다. 마치 어릴 적 할아버지 사랑방의 구수한 담배 냄새가 배어있는 듯한 아늑한 전원마을의 풍경 그대로이다.

옛날 마재(馬峴里)라 불리던 이곳은 마을 뒤쪽으로 아름다운 운길산이 우뚝 솟아 있다. 마을 앞으로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이룬 양수리 팔당호의 푸른 물결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그야말로 자연경관이 빼어난 고장임을 금세 알 수 있다.

웅기종기 다정하게 모여있는 마을의 농가(農家)는 더없이 평화롭기만 하다. 담장 너머로 볼 수 있는 농가 한 마당에는 수확한 갖가지 농작물들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쌓여있다. 명석에 깔려있는 붉은 고추, 김장을 준비하는 배추와 무, 농기구와 장독대 등의 모습에서 소박한 옛 시골의 정취가 그대로 느껴진다.

정약용이 태어나서 자란 생가 여유당(與猶堂)은 그 정겨운 마을의 한 가운데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어 더한 조화와 운치가 있다. 조선 후기 실학(實學)의 대가였던 정약용은 영조 38년(1762) 6월 16일 여기서

태어나 성장기와 수학기를 보냈다. 그 후 벼슬길에 오르고 강진(康津)에서 기나긴 유배생활을 하다가 말년에 다시 마현리 생가에 돌아와 여생을 보낸 곳이다.

전통한옥의 정약용 생가는 넓은 마당을 중심으로 하여 독서와 서재, 침잠을 하기에 알맞게 구분되어 있다. 본래의 생가는 홍수 때 떠내려가 1975년 새로 복원한 것이다. ㅁ자 양식의 20칸 집으로 아늑한 한옥의 옛 정취를 그윽하게 풍겨주고 있다.

생가 왼쪽으로는 새로 지은 사당 건물이 단정하게 자리잡고 있고, 다시 생가 뒤편의 ‘여유당’이라 새긴 비머리돌을 지나 언덕길을 조금 오르면 정약용 선생의 묘소가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다. 바로 집 뒤의 뒷동산으로 정면 발 아래로 생가와 마을전경이 한눈에 아늑하게 내려다보인다.

다산의 묘는 대학자의 묘소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주 소박하고 검소하게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곡장에 쌓인 봉분 앞엔 상석과 향대가 있고 오른쪽엔 정약용과 부인 풍산 홍씨(豊山 洪氏)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 비석이 서 있다.

가을의 저녁 노을 빛을 곱게 받으며 묘 앞에서 정면을 내려다보면 은빛 물결이 출렁이는 양수리 팔당호가 잔잔히 펼쳐진다. 그 아름답고 조화로운 전경(全景) 모습은 가히 보는 이로 하여금 찬탄을 하게 마련이다. 정말 이곳이야말로 풍수 지리학적으로 명당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사상가 정약용의 생애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 여기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다산은 정조 13년(1789) 문과에 급제한 후 홍문관 수찬 등 여러 관직을 거쳐 형조 참의를 지내면서 규장각의 편찬사업에 참여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는 23세에 『중용』을 펴들고 정조 임금에게 어전강의를 하는 등 정조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거중기 등을 발명해 수원성을 축조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시간과 국고를 절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실사구시(實事求是) 학문의 대표자 정약용은 순조 원년(1801) 신유박해 때 유배된 후, 다시 황사영(黃嗣永) 백서사건(帛書事件)에 연루되어 전라도 강진으로 옮겨 18년간 귀양살이를 했다. 그는 유배생활의 시련을 낭비없이 활용, 대쪽같고 빈틈없이 학문연구에 전념해 목민심서(牧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 등 후세에 길이 빛나는 저서를 남겼다.

그의 500여 권 저서에는 시대를 탐구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와 성찰이 충만해 있다. 지역차별과 당색 타파, 세계개혁과 인사정책의 쇄신, 신기술 도입 개발, 또한 중농(重農)의 사상아래 농민을 일깨우는 갖가지 저서들은 오늘날까지도 귀감이 돼 주고 있다.

긴 유배 길에서 벗어난 다산은 1819년 10월 다시 고향 땅 양주에 돌아온다. 그 때는 백형 약현(若鉉)만 남아 있을 뿐 부모와 형제들 모두 세상을 떠나고 집은 쇠락해 있었다. 정약용은 17년 동안 평화로운 이 고향마을을 유유히 소요하면서 못다 한 학문을 마무리하고 오직 여생을 저술에 몰두하다가 1836년 2월 22일 75세로 세상을

떠났다.

한편 생가 한 옆에는 ‘다산기념관’과 ‘다산문화관’이 아담하게 지어져 있어 그의 위대한 업적을 대변하고 있다. 그 안에는 다산의 일대기와 함께 그가 생전에 쓰던 각종 서책과 유품들이 시대별로 알기 쉽게 진열되어 있다.

또한 그가 남긴 문화적 발자취를 재현하

는 ‘다산문화제’가 매년 10월에 열려 지역 문화축제로 풍성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다산의 향기로운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이 곳은 참으로 의미 있는 여행길이라 하겠다. 조용하면서도 역사와 문화적인 가치를 깊이 간직한 곳이다.

